

풍요 속의 빈곤? ... 'KIA 안방' 무한경쟁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풍요 속의 빈곤'인 KIA 타이거즈의 안방이 뜨거워진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는 한승택·한준수·신범수와 함께 '2024 루키' 이상준으로 포수조를 꾸렸다.

주전 포수 김태균과 함께 1군에서 호흡을 맞출 포수를 찾는 경쟁. 프로 입단을 앞둔 이상준을 제외하고 3명의 선수는 모두 1군 경력이 있는 이들이다.

캠프조 외에 김선우가 상무야구단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지만 코로나팬데믹 당시 강렬한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권혁경이 오는 1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입단한 이상준과 트레이드로 키움에서 온 주효상도 있다.

숫자로 보면 KIA의 포수진이 풍성하다. 하지만 KIA는 몇 년 동안 포수 고민을 이어왔다. 고민 해결을 위해 몇 차례 트레이드를 시도하는 등 우려곡절이 많았다.

'풍요 속의 빈곤'이었던 KIA의 안방이 앞선 몇 년과는 다른 방향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KIA는 시즌 중반 류지혁과의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김태균과 지난 10월 16일 계약 기간 3년, 연봉 20억원 옵션 5억원 등 총 25억원에 다년 계약을 했다.

안방 중심을 잡아줄 배테랑을 두고 포수 구상을 하게 된 만큼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한승택은 수비와 경험으로 어필한다. 수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한승택은 가장 많은 593경기에 출전하면서 경험에서도 앞선다. 역시 관건은 타격이다. 기록 많은 방망이에 어떻게 힘과 안정감을 더하느냐가 한승택의 숙제다.

한준수는 올 시즌 제대료 어필 무대를 펼쳤다. 전역 후 첫 시즌을 보낸 한준수는 간절함을 바탕으로 시원한 타격도 선보이면서 포수 경쟁에 새로운 불을 붙였다. 경험과 체력을 더해 올 시즌 기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한준수에게 필요하다.

한승택·한준수·신범수·이상준 주전 포수 김태균과 함께 경쟁 한승택 수비·한준수 타격 신범수 공격·루키 이상준 도전

신범수도 타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공격형 포수다. 올 시즌 100타석에 나와 2개의 홈런포도 기록하는 등 타격적인 부분에서 신범수의 가능성을 다시 보여줬지만, 포수로서의 안정감을 키우면서 마운드를 깔고가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마무리캠프에서 올 시즌을 돌아보고 내년 시즌을 위한 칼을 갈고 있는 선배들에게 새로운 경쟁자도 등장했다.

경기 포수 이상준이 '루키'로 오키나와 캠프에서 눈도장을 찍고 있다.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이름을 부른 스카우트팀에서도 '깜짝 놀란' 선수였다. 주효상 트레이드 당시 2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 양도했던 만큼 KIA는 눈여겨봤던 이상준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했다. 이상준을 품에 안고 패자를 불렀던 KIA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아직 가다듬을 부분이 많지만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송구와 무엇보다 당찬 방망이가 눈길을 끈다. 이상준은 코칭스태프는 물론 선배들도 눈이 휘둥그레지게 하는 타격 실력을 과시하면서 선배들을 한 발 더 움직이게 하고 있다.

김상훈 배터리 코치는 "우리가 시즌 때 미흡했던 부분,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포수라는 포지션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자리니까 올하는 이런 부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한다"며 "시즌 전체적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어린 선수들이 1군 경기를 뛰기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 경험을 하면서 실수하면서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시즌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태균이 있다는 부분이 크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없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태균이는 후배들한테, 후배들은 선배한테 시너지가 나면서 같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한준수(왼쪽부터), 한승택, 이상준, 신범수가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안방 경쟁을 벌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노시환 10회말 끝내기...류중일호, APBC 첫 승

호주에 연장 10회 3-2 역전승 문동주·김도영·정해영 맹활약

한국 야구가 극적인 역전승으로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2023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APBC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 도코모에서 열린 대회 예선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노시환(한화)의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 3-2로 이겼다.

결승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한 한국은 17일 일본, 18일 대만과 차례로 예선전을 치른다.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1차전에서 호주에 발목 잡혔던 한국은 8개월 만에 설욕에 성공했다.

정규이닝 동안 승패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무사 1·2루에 주자를 두고 공격하는 승부 치기에 돌입했다.

9회 2사에 등판했던 정해영(KIA)이 10회초에도 마운드에 올라 무실점으로 역투하고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선두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정해영은 후속 타자의 병살타를 끌어냈다. 3루수 김도영(KIA)이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한 번에 잡지 못했으나 침착하게 3루를 밟은 뒤 2루에 공을 뿌렸다. 그리고 10회말 4번 타자 노시환이 선두타자로 나서 조구에 좌중간 적시타를 터뜨리고 혈투를 끝냈다.

이날 한국의 출발은 좋지 못했다. 호주 타선은 선발 문동주(한화)의 주무기인 150km대 직구에 잘 대응했다.

문동주는 1회초 선두타자인 리엄 스펠스에게 볼넷을 내준 뒤 폭투와 볼넷으로 1사 1·3루 위기를 자초했다. 4번 타자 알렉스 홀을 뜬공으로 처리했지만, 후속 타자 캄벨에게 직구를 던졌다가 우전 적시타를 맞았다.

2회말 문현민(한화)의 내야 안타, 나승엽(롯데)의 볼넷 등으로 만든 1사 1·2루에서 김형준



16일 일본 도쿄도에서 열린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예선 1차전 대한민국과 호주의 경기. 10회말 무사 1·2루에서 노시환이 끝내기 안타를 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NC)이 초구 슬라이더를 공격해 중전 적시타를 작렬했다. 김주원(NC)이 볼넷을 끌라내 1사 만루로 연결했으나 후속타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문동주가 안정감을 되찾았지만, 한국은 득점권에 주자를 계속 보내면서도 추가점을 내지 못했고 결국 호주가 먼저 추가점을 냈다.

4번 타자 홀이 6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3구째 150km 직구를 받아쳐 비거리 110m의 우월 솔로포를 때렸다. 이후 문동주는 아웃 카운트 2개를 잡고 볼넷을 내준 뒤에 김영규(NC)에게 공을 넘겼다.

문동주는 5.2이닝 동안 공 102개를 던져 5피안타(1홈런) 4볼넷 5탈삼진 2실점(2자책)을 기록했다.

한국은 8회말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좌익선상 2루타를 뽑아냈고, 2사 후 김주원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때린 타구가 중견수 앞쪽 절묘한 위치에 떨어지며 2-2 동점이 됐다.

김주원이 견제구에 잡혀 기회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노시환이 10회말 끝내기 안타를 터뜨려 아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합뉴스

"포수는 상대에 표정 들키지 않는게 중요"

타케시 배터리 코치

"오랜만에 만났지만 같이 웃어서 좋다"며 나가무라 타케시(사진) 코치가 웃었다.

KIA 타이거즈는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 타케시 배터리 코치를 인스트럭터로 초빙했다.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에서 활약했던 그는 2015 시즌부터 2017시즌까지 KIA 1군 배터리 코치를 맡아 'V11'에 함께 했다. 2018시즌에는 2군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19-2021 시즌까지 주니치 1군 배터리 코치를 했다.

다시 유니폼을 입은 타케시 코치는 반가운 이들과 함께해서 더 좋다.

타케시 코치는 "캠프에 와서 정말 기분 좋다. 유니폼을 입는 게 좋다. KIA에 애정이 많아서 정말 좋다"며 "지금 감독과 2017년에 코치로 있었기 때문에 정도 많이 있고 한 번 더 우승을 하고 싶다"고 캠프 참가 소감을 밝혔다.

KIA 안방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그는 긍정적으로 내년 시즌을 봤다.

타케시 코치는 "투수와 포수가 중요한데 타자들 타격이 좋다고 들었다. 좋은 선수도 많고,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제자들의 여전하지만 달라진 모습도 좋다.

타케시 코치는 "다 같이 나이 먹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표정만 봐도 짐작할 게 보인다"며 "한준수는 배팅에서 파워가 좋고 어깨도 좋다. 예전에는 프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다. 스로잉이 중요하다. 본인도 조금 더 동작이 빨라지고 싶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수비에서는 한승택이 침착하게 잘한다. 올해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이 많았다고 한다. 생각한 것처럼 못했다고 했다. 수비는 관중한테 배팅 쪽에 과제가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비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타격면에서 관중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한 타케시 코치는 "신범수는 배팅을 잘 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기술적인 것보다는 자신감 먼저 채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표정에서 금방 상대에게 들린다. 좋을 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좋을 때는



금방 떨어져 버린다"고 세 선수를 이야기했다.

세 선수 모두 기술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다는 타케시코치는 '포커페이스'를 강조했다.

타케시코치는 "포수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해야지 얼굴로 표현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시합 때 상대에게 표정이 들키지 않는 것이다"며 "셋 중에서도 준수가 표정에 가장 잘 안 나타난다. 포수는 생각이 많은 자리라 어려움이 있지만 범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많이 기르게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루키 이상준에 대해서는 "제2의 양의지"를 기대했다. "고등학교때 일본에서도 그렇고 저런 체형을 본 적이 없다"며 이상준의 피치컬을 이야기한다. 타케시 코치는 "전체적으로는 딱딱하고 뻣뻣하기는 한데 방망이 돌리는 것도 그렇고 어깨도 좋다. 체력적인 부분 중점을 두고, 프로 선수 불 많이 받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습하면서 스스로 뭐가 부족한지 느낄 것이다. 우선 이 캠프에서는 스스로 느껴야 한다. 처음 캠프 왔으니까 어떤 걸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서두를 필요 없다. 감 찾고 하면 제2의 양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도루저지'를 강조하면서 캠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타케시 코치는 "포수 자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루 저지 능력이다. 내년에는 피치클락도 실행된다. 아웃과 세이프는 운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도루 못 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며 "도루 저지가 중요하다. 투수들이 주자를 덜 신경 쓰고 타자한테 집중할 수 있다. 신경 쓸 게 많으면 투수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포수는 투수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wool@kwangju.co.kr

LPGA 최종전 CME 챔피언십 상금 크게 오른다

내년부터 143억원으로 인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챔피언십 상금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

대회를 주최하는 CME 그룹은 내년부터 대회 총상금을 1천100만 달러(약 143억원)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개막하는 올해 CME그룹 투어챔피언십 총상금은 700만 달러(약 91억원)이다.

메이저대회가 아니면 200만 달러 안팎인

LPGA 투어 대회 총상금보다 한참 많은 상금이 내년에는 더 불어난다.

1100만 달러는 LPGA투어 대회 최다 상금을 내걸고 치른 올해 US여자오픈 총상금과 같다.

CME그룹 투어챔피언십은 CME 포인트 상위 60명만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 상금은 이들 메이저대회보다 더 크다.

총상금이 대폭 올라가면서 우승 상금도 인상된다. 올해 우승자한테는 200만 달러가 돌아가지만, 내년 우승자는 400만 달러를 받는다.

올해 LIV 골프 우승자가 받은 상금과 똑같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도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넘는 대회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450만 달러) 하나뿐이다.

CME그룹 투어챔피언십 우승 상금은 남자 골프 4대 메이저대회 우승 상금보다 많아진다.

CME그룹 테리 더피 회장은 올해 US오픈 테니스 대회를 관람하러 갔다가 남녀 우승자 상금이 똑같은 사실을 보고 이처럼 상금을 크게 올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같은 역할을 한다면 남녀가 임금을 달리 받을 이유가 없다고 늘 생각했다. 남자라고 우대받을 일은 없다"고 남녀평등을 강조했다.

한편 CME그룹은 2024년과 2025년에도 CME 그룹 투어챔피언십을 주최하기로 LPGA 투어와 합의했다.

/연합뉴스